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3호 【루계 제25752호】 주체106(2017)년 8월 3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인 음뽕고 네 꽁고 전국위원장이 3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가 황주군에 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수십차례나 군을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서두수발전소에 모셔진 모자이크벽화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리!》는 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 서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황해북도인민보안국에 징중히 모셔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4월 도사회안전국(당시)을 찾으신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수많은 인민보안기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종업원들은 주체100(2011)년 10월 공장을 찾으시여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영예군인들이 한생을 값있게 살도록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한몸 다 바쳐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은 백승의 정치방식, 필승의 보검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격찬

수십성상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수놓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에질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 16일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선이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주도해나가는 주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선군에 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약소국으로 국제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불패의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바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와 김정은령도자께서 대를 이어 계승하고 구현해오신 선군의 귀결이다.

신문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선군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이렇게 서술하였다.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누가 지켜주는것도,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피를 물고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힘이 안받침되지 못하면 자주의 기치를 들수도 없고 견지할수도 없다.

오직 총대를 앞세우는 길만이 무력과 강권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는 길이다.

선군으로 빛나는 조선의 어제와 오늘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조선은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은령도자의 손길아래 주체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막강한 군력이 있기에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 하면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유일초대국》도 눈아래로 내려다보며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다.

실로 선군은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구현해야 할 백승의 정치방식, 필승의 보검이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군은 최정예혁명강군, 무적필승의 혁명대오로 자라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었다고 찬양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파괴되고 현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조선이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어야 했던 지난 세기 말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날로 로골화하였다.

이러한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적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되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를 지켜주시고 조선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만마 미트 타르모슬란사 총사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뜻을 받들어 김정일각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위업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은 외세의 그 어떤 침략에도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을 다 갖추게 되였다. 특히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강위력한 핵억제력까지 보유하게 되였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조선의 현실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미국은 조선인민의 힘과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시고있으며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대진군으로 원쑤들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자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집단적혁신의 불길 지펴올린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각지의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인민경제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골광산의 고경찬영웅소대에 보내주신 축하전문에 무한히 고무되여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만리마시대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영광갱 박태선영웅소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5돐이 되는 지난 2월 1일 전투현장에서 모임을 열고 박태선영웅의 혼까지 합쳐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2년분 채광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갔다. 소대원들은 중단식채광법을 비롯한 합리적인 채굴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교대당 광석생산량을 2배로 끌어올림으로써 지난 5월 19일까지 년간계획완수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였다. 그 기세로 올해에 기어이 2년분 채광계획을 수행할 드높은 열의안고 줄기찬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릴 일념안고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도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 1갱 김영옥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23돐이 되는 지난 6월 29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숨죽였던 압축기와 적재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살려내고 합리적인 발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발파효률과 굴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갔다. 또한 원쑤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짓뭉개버릴 일념안고 수백정의 침목과 수천개의 레루못을 회수리용하며 투쟁성과를 확대하였다. 가족소대원들은 후방사업을 진행하면서 비력운반작업도 도와주어 소대원들이 당앞에 결의한대로 지난 6월 29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데 기여하였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산탄광 5갱 김창호굴진소대원들도 교대별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굴진개소를 더 늘이고 암질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굴진속도를 2배로 높여나가고있다. 지난 5월 중순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소대원들은 당창건기념일까지 2년분 굴진계획을 수행할 목표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9갱 홍순광채탄중대 채탄공들도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채굴장에 사슬톱베아 1대를 증설하여 석탄운반능력을 2배로 높이였으며 교대를 마치면 동발나무나르기와 운탄선로정비를 하면서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지난 4월 22일까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련속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신 8돐이 되는 8월 17일까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에서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상반년 굴진계획을 끝낸 그 기세로 청년전진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것을 결의하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차량수대장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압축공기관이 모자라면 인발관을 회수리용하고 동발목이 부족될 때에는 교대휴식시간을 바쳐가며 동발나무를 끌어내리였으며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임으로써 결의한 날자보다 50여일 앞당겨 지난 7월 7일 년간 굴진계획을 빛나게 결속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운광사업소 7운광직장 702호대형화물자동차 운전사 박영택동무를 비롯한 교대운전사들은 많은 예비부속품들과 수리공구들을 갖추어놓고 자동차정비보수를 계획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교대전 점검과 도중검차점서를 철저히 지키고 차의 신동률을 높여 경사스러운 태양절까지 년간 운광계획을, 6월말까지 2년분 운광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운영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4월 중순 12호보이라에 대한 보수작업이 제기되였을 때 채 식지 않은 보이라의 화실우에 발판을 설치하고 고열속에서도 교대로 전투를 벌려 보수시간을 15시간이나 앞당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지난 6월 9호보이라보수전투도중 전정기중기가 고장나자 직장의 로동자들모두가 떨쳐나 보수작업을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헌신적인 투쟁의 날과 날을 이어가며 전력생산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가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 내화물직장 종업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였다. 이들은 오랜 기간 숨죽였던 소성로를 살려내고 내화벽돌의 랭각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창안도입하여 지난 5월까지 년간 내화벽돌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위대한 당의 병진로선따라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한 봉쇄책동을 짓뭉개버리고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야말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열, 투쟁열은 날이 갈수록 보다 큰 로력적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최영조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한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공세를 벌려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수대창작사 당조직에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공화국정부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일군들과 창작가, 형상원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미술작품창작과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조선화창작단, 유화창작단, 출판화창작단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원쑤들의 포악한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붓대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일념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전례없던 미술창작성과를 거두었다.

조선보석화창작단, 수예창작단, 공예창작단 등 모든 창작단들에서는 원쑤들의 머리우에 복수의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술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발표 10돐을 맞으며 90여점의 미술작품을 출품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내원료에 의한 석고생산공정을 완성한 공무동력사업소 전투원들, 철미도축구단 숙소와 청사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킨 대외건축장식단 전투원들을 비롯하여 창작사안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원쑤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짓부셔버릴 결사의 각오안고 만리마속도를 창조해가고있다.

봉화지도국 당조직에서는 공화국정부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된 즉시 열린 지도국과 아래단위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긴급협의회와 군중집회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생산돌격전으로 짓부셔버릴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지도국과 아래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공화국정부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가지고 여러차례 독보를 진행하였으며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내용의 교양사업을 방송선전, 긍정자료통보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성명이 발표된 이후 하루동안에만도 지도국안의 590여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북대를 탄원하였으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와의 총결산을 위한 전투장에 선 심정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피복부문의 일군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로 생산현장들에 나가 종업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위훈에로 부르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지도국적인 8월 피복생산계획을 지난 12일까지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안아왔다.

조선대양총회사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급상승한 긍지와 자부심, 원쑤격멸의 의지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단위 당조직들에서는 공화국정부성명에 대한 독보와 종업원집회를 통하여 적들의 발악적인 《제재결의》를 반대배격하는 우리 당의 의지를 깊이 심어주고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총회사적으로 지난 8월 9일 하루동안에만도 280여명의 청년동맹원들이 인민군대입대, 북대를 탄원하였다.

공화국정부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총회사아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불꽃튀는 생산전투를 벌려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밖에도 많은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적들의 악랄한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더 많은 파철을 강철전선에

평양시에서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사상 최대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를 안고 강철전선을 지원하고있다. 얼마전 시에서는 100여대의 화물자동차들에 수백t의 파철을 실어 철강재생산으로 불끓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관철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현시기 강철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군중적운동으로 모아들인 파철을 지체없이 강철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 해당 부문 일군들은 구역, 군들에 나가 일군들과 대중을 파철수집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국장 박정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파철수집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전투적으로 일을 전개해나갔다.

강철전선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락랑구역과 중구역, 대동강구역과 선교구역이 모범을 보이였다.

락랑구역과 중구역의 일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성명이 발표된 이후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 나가 강철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철수집에 떨쳐나서도록 힘있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많은 파철을 모아들이였다.

대동강구역과 선교구역의 일군들은 산하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파철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한kg의 파철이라도 더 모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많은 파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특히 대동강구역, 서성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계획보다 더 많은 파철을 모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최수복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안아온 민족사적인 대승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이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에게 커다란 전률과 공포를 주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우리 조국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존엄떨치게 한 7월의 특대사변들은 국방과학전사들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폭발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 사람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며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당의 옳바른 령도를 만을 때 위대한 투쟁과 번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되게 된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그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것이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이다.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발휘되는 곳에서는 무에서도 유가 창조된다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 사람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며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당의 옳바른 령도를 만을 때 위대한 투쟁과 번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되게 된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그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것이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이다.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발휘되는 곳에서는 무에서도 유가 창조된다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 불같은 헌신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그들모두를 영웅적위훈창조의 길로 이끄시는 세련된 령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평범한 사람들도 시대의 기수, 영웅으로 자랑떨치고 최강의 혁명강군과 천하무적의 명장부대, 창조의 대군이 자라나고있는것이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 탁월에도 사상을 제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중시의 지론을 지니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여 무한대한 힘과 용맹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날과 달은 만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승리, 대변혁들과 세상을 놀랬다놓는 영웅신화들로 수놓아지고있다.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운 경이적인 기적도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국방과학전사들을 길음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현대과학기술과 군사기술수단, 경제적잠재력도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과 결합되여야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모든 사업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보시며 자신의 온넋과 심신을 다 바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그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의 력사적대업이 빛나게 성취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방과학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주체의 신념,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을 억척같이 심어주신것은 7월의 대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다.

국가력량강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신념과 의지의 첨예한 대결이다. 신념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가장 횡포한 도전과 압력속에서 최강의 힘을 다져야 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없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제힘으로 기어이 강국의 리상을 실현하려는 각오를 지닌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만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목제의 핵을 짓뭉개버릴수 있는 정의의 해보검을 틀어쥘수 있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이 2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안아온 나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슬하에서 명실공히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선구자, 자주적신념과 배짱의 제일강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나날이였다. 전략적핵무력강화를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설계와 제작으로부터 시험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과 요소를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우리의 로케트공업을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전환시키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몸소 국방과학전사들을 주체가 철저히 선 최정예과학연구집단으로 키워주심으로써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한 《3.18혁명》이 일어나고 완전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단번성공시킨 《7.4혁명》과 7.28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방과학전사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결사대로 내세워주시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신것은 7월의 대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정신적원동력이다.

혁명투쟁에서 발휘하는 희생성과 불타는 열정, 무한한 헌신성은 결사의 각오에 바탕을 두고있다.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고 죽음을 각오하고나선 혁명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은 남들같으면 감히 엄두조차 낼수 없는 사상 최악의 시련과 도전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건드릴수 없는 위대한 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적대업을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1선전투원이 되시여 전두에서 이끄신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기어이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빛내이실 웅지를 안으시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가력량강화의 험로역정을 한치한치 앞장에서 헤치시였다. 당의 권위, 조국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린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완성하기 위하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이 구호에는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가장 중대한 력사적과제를 온넋을 깡그리 불태워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신변의 위협마저 아랑곳없이 국방과학전사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고와 헌신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강의한 정신력으로 격전의 낮과 밤을 지새우며 끝끝내 《7.4혁명》과 7.28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열원이였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최세의 천출위인,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안겨살 위대한 어버이가 언제나 우리곁에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결사전을 벌리면서 이것을 매일, 매 시각 실생활로 체험하였기에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은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며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베풀어주신 대혜같은 믿음과 사랑은 7월의 대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자양분이다.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은 진실하고도 강렬한 애국충정의 정신력, 완강한 의지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3.18혁명》과 《7.4혁명》을 거쳐 불과 20여일만에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장쾌한 불꽃성을 또다시 터친 7.28의 기적적승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을 조선로동당의 과학전사, 열혈충신으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으며 온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를 경축하여 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도 미국놈들의 습격을 겨 바싹 조일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7.4혁명》을 안아온 그 기세, 그 정신으로 련속공격하여 더 큰 승리를 쟁취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부터 풀어주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정치위원이 되시여 그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7.4혁명》을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안겨주시고 경축공연무대와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이 있어 련속대성공의 승전로성이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후손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국보인 주체탄들에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최정예과학연구집단, 충정의 전투대오로 굳게 믿고 그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웅심깊은 세계가 맥박치고있다.

오늘 국방과학전사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세상을 놀랬다놓는 주체탄의 장쾌한 뫼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림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적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려는것이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국가력량강화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이 있고 당중앙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윤 철 희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사리원트락토르부속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실속있는 교양사업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당조직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이곳 당조직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직장에서 일해온 한 로동자를 잘 준비시켜 종업원들앞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혁명의 년대기마다 발휘된 전세대의 투쟁에 대한 생동한 자료와 사진, 직관물, 편집물을 통한 해설사업은 종업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절세위인들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든 전세대의 영웅적위훈은 새 세대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을 충정과 보답의 일념으로 불타게 하였다.

이날의 해설사업에 고무된 종업원들은 가성소다와 화학제품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농통신원 장 명 일

지난 8월 9일 당보에 실린 한편의 노래가 오늘도 커다란 진폭을 안고 시대를 격동시키고있다. 원쑤 미제에게 폭탄선언을 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과 나란히 게재된 노래는 거대한 충격으로 시대를 울리며 대번에 민심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온 나라 남녀로소가 오늘도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열렬한 충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원쑤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는 준엄한 오늘 인민의 슴결이 되고 시대의 메아리로 된 가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이는 인민의 무밑없는 진정이고 스스럼없이 터치는 열렬한 심장의 고백이다.

가슴에 고패치는 어머니당에 대한 뜨거운 격정을 안고 수백만명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고 조선인민군 전략군장병들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통쾌하게 진행하였다. 이 땅의 천만군민이 이 노래와 함께 수령결사옹위전,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거나 엄혹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복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과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거나 엄혹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복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과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여야 합니다.》

원쑤들이 칼을 물고 날뛰고있는 때에 우리 천만군민은 이렇듯 당에 대한 칭송의 노래, 충정의 노래로 대답해나섰다.

침략자, 도발자들과의 관가리결사전에 떨쳐나선 시각에 정서깊고 숭엄한 매혹의 노래, 당에 대한 송가를 결전의 노래처럼 부르며 나아가는 이런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따사로운 그 사랑 해빛처럼 《만세!》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승리의 단상에 선것과도 같은 환희로 가슴들먹이는것인가.

당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운명의 하늘이고 삶의 요람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어머니당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승리만 있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다.

| 수 필 |

영원한 심장의 메아리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으로 제재의 그물망을 악착스럽게 조이는 악의 무리들, 또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야수들, 갈가마귀떼처럼 밀려든 미제와 추종국가의 고용병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광분하면서 《전쟁불사》론까지 떠들고있는것으로 하여 격전전야를 방불케 하는 때에 뇌성마냥 메아리치는 가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원쑤들이 칼을 물고 날뛰고있는 때에 우리 천만군민은 이렇듯 당에 대한 칭송의 노래, 충정의 노래로 대답해나섰다.

침략자, 도발자들과의 관가리결사전에 떨쳐나선 시각에 정서깊고 숭엄한 매혹의 노래, 당에 대한 송가를 결전의 노래처럼 부르며 나아가는 이런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따사로운 그 사랑 해빛처럼 《만세!》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승리의 단상에 선것과도 같은 환희로 가슴들먹이는것인가.

당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운명의 하늘이고 삶의 요람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어머니당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승리만 있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다.

우리를 축복하고
자애로운 그 손길 키발처럼
영광의 길로 이끄네
항도의 힘 돋기차고 억세여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친근한 그 이름 부르며
감사의 노래 드리네
…

노래는 인민의 사상감정의 열렬한 분출이고 정신력의 가장 힘있는 폭발이다. 하다면 준엄한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찌하여 당에 드리는 송가를 심장으로 열렬히 합창하는것인가. 어이하여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심원한 진리를 우리는 책에서 알지 않았다.

위대한 우리 당이 항도의 손길 높이 드는 곳에는 기적의 만리마가 나래쳐오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지 않았던가.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겹쌓여도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만을 맞이하였고 우리 앞길에는 아름다운 미래가 말음쳐왔다. 그 품에선 아이들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 사람들 누구나 친형제로 화목하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만복의 웃음소리만 넘쳐난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다.

오로지 우리 인민의 존엄과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하여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력사의 험로역정을 헤치시며 사회주의강국의 최후승리를 일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우리 원수님과 영원한 혈맥을 이루어 그이와 떨어져선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천만아들딸들이다. 하기에 언제나 인민의 심장속에는 어머니당이라는 그 부름이 백두산약처럼 굳건히 간직되여있고 이 나라 천만군민은 영원히 조선로동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것이다.

그렇다. 이 노래 부르며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것이다.

이제 최후의 결전에서 멸적의 함성처럼 울려퍼질 이 노래와 더불어 천만이 싸움터마다에서 날강도 미제를 용감히 무찌르고 력사의 승리자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것이다.

정녕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는 천만군민의 영원한 심장의 메아리,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고하는 조선의 《혁록탄》이다!

본사기자 최 유 일

일심단결의 힘 당할자 세상에 없다

온 나라가 더욱 힘차게 떨쳐나섰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힘찬 진군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도전해나섰으니 어찌 천만의 심장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수 있으랴.

조국땅을 둘러보라.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든다 하여도 혁명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원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 열의로 충만되여있는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이며 천백배의 보복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는 우리 인민이다.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한모습으로 살며 투쟁하는 이 격동적인 현실은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점령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혁명하여온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가슴뜨겁다.

언제나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믿음,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지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주체101(2012)년 1월 1일이 되새겨진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세상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계시면서도 인민군장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탈음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며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그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원수님께서 찾으신 인민군부대들은 그 얼마이며 끊임없이 이어가신 사랑과 헌신의 길은 몇천몇만리였던가.

일심단결의 위대한 력사가 아로새겨진 나날들에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모습도 비껴있다.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분위기가 무겁게 떠도는 때에 위험천만한 최전연을 련일 찾으시며 사랑하는 전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불타는 소원을 담은 노래를 심장으로 부른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그이께서 떠나실 때에는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휘어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린 이들이였다.

과연 어느 나라 력사에 이런 눈물겨운 화폭이 새겨진적 있었던가.

병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도 함께 하는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진정한 동지무대, 전우무대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 아니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첫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여야 합니다. …

그날의 이 위대한 호소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을 울리고 온 세계를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흐르는 날과 달, 한해한해를 이처럼 위대한 단결의 서사시로 수놓으시였다.

크지 않은 산골군의 인민봉사기지, 동해안의 수산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새겨가신 자욱들마다에 생겨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인가.

인민극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였다고 하시며 스스럼없이 4월 28번좌석에 앉으신 사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탄약상자처럼 쌓인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그날의 사연…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서였다. 2년전 9월 조국의 최북단에 절처진 불멸의 화폭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 머나먼 하늘길, 때길을 달리시여 라선시의 큰물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어기신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찾라야 한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건설자들이 당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냄으로써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한마음 우러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가장 신성한 존재이고 생의 전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필생의 좌우명이며 의지이다.

인민을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드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다 합쳐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리상과 꿈을 모두 이루어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열도를 어찌 다 헤아리랴.

민족의 대국상으로 얼어든 천만군민의 마음을 뜨거운 열과 정으로 녹여준 우리 원수님 같으신 인민의 령도자를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가슴에 파고드는 육아원, 애육원원아들을 한품에 껴안고 그들모두를 혁명의 대를 억세게 이어나갈 나라의 억군으로 키워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임무수행도중 전사한 평범한 군인들을 그처럼 내세워주시며 그들의 표주가 되여주신 우리 원수님 같으신 최고사령관을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과 열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사랑은 기적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의 보고를 올릴 그 시각을 위해 억척같이 일떠선 위성과학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쏴올리는 민족의 대경사를 안아왔고 전선천리 머나먼 길을 이어 고산땅을 찾으신 원수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메이던 돌격대원들이 전선지대 무릉도원, 철령아래 사파바다를 펼쳐놓았으며 원수님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정을 터치던 체육인들이 세계의 하늘높이 람홍색공화국기를 련이어 휘날렸다.

이뿐이 아니다. 올해에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리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랑과 믿음의 거룩한 세계를 받아안았고 산악도 떠옮길 무한대한 힘을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악동하는 힘의 근본원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에 매혹되여 천만군민은 원수님께 스스럼없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였다.

하기에 적들까지도 첨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국민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인도 재현해낼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조선만이 유일하게 독점한 천하유일의 재보이고 핵무기로도 당해낼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이다라고 진실을 고백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그것은 적들이 그 어떤 참소리나 유혹으로도 흔들어놓을수 없고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오직 조선에만 있는 최강의 무기이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백두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아가는 일심단결의 대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천만군민이 일심단결,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고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적들이 떼를 지어 덤벼든다 해도 최후승리의 단상에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 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욱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사랑의 길, 애국헌신의 길우에 뜨겁게 어린 만단사연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한없이 울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주체102(2013)년 8월 초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를 무릅쓰시고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념원을 안으시고 무더위를 헤치시고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승마구락부를 손색없이 훌륭히 꾸리기 위한 과업을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미림승마구락부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혁명사적물보존실을 잘 꾸리며 건설중에 있는 건물들을 통나무로 지은것처럼 설계한것만큼 실감이 나게 천연재료를 리용하여 외벽치리를 특색있게 할데 대한 문제, 말타기에 편리하게 잔디 및 토사주로를 잘 닦고 실내승마훈련장에는 톱밥깔은것을 두툼하게 깔아주며 원형승마훈련장을 더 건설하고 토사주로에서 말을 할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승마주로의 곳곳에 사람들이 말에서 쉽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시설물들도 설치해줄데 대한 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무더위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운영에 필요한 좋은 말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넘친 말씀도 하시고 말판리를 잘하고 말마리수를 늘이자면 이곳에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도 건설할데 대하여 각근히 이르시며 오랜 시간을 바치시였다.

미림승마구락부를 인민의 훌륭한 재부로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사랑과 심혈은 정녕 끝이 없었다.

찌는듯 한 무더위로 하여 경애하는 그이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에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간절한 념원이 불타올랐다. 그 념원을 담아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절절한 말씀을 올리였다.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씨가 아무리 무덥다고 하여도 내가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흔연히 말씀하시였다.

혹심한 무더위속에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격정에 넘쳐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후더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이께서 헤치신 삼복철강행군길우에 애국충정의 자욱, 보답의 자욱만을 새겨갈 결의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예견성있는 작전과 지휘, 진취적인 일본새

은 파 군 에 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미제의 단말마적발악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릴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은파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미 계획을 보름정도 앞당겨 8월 중순까지 모든 탈곡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끝냈으며 뜨락또르수리정비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탈구지수리, 소농기구준비 등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이 성과는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영농공정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작전하고 빈틈없이 짜고들며 강하게 내민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물베기와 농작물비배관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이날 군일군들의 모임에서 책임일군은 당면한 영농사업과 함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도 동시에 내밀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가자들은 깜짝 놀랐다. 아직 날자가 있는것 같은데 벌써부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를 하는것은 지내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앞섰기때문이다.

그러는 군일군들에게 한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교훈적이였다.

일군들이 있을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사업을 작전하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기성을 요구하는 농사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가을철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을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타산하고 준비를 철저히 갖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기일에 끝낼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숱한 낟알을 허실할수 있다. …

군일군들은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보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를 예견성있게 빈틈없이 갖추어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러면 군일군들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를 내밀었는가.

우선 현실에 깊이 들어가 구체적실정을 정확히 파악함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든것이다. 뜨락또르수리정비를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군일군들은 뜨락또르의 가동률이자 운반실적이라는 관점에서 그 수리정비를 예견성있게 작전하고 내밀었다. 그들이 중시한것은 당면한 여러가지 운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리정비의 질적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는것이였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이 아무리 높아도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는다면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이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들은 모든 뜨락또르들의 년간가동률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기술상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뜨락또르대수리를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진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 소수리는 2개의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여 지구별로 갈라서 현장에 나가 진행하도록 하였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니 당면한 운반작업에 사소한 지장도 주지 않으면서 품이 많이 드는 뜨락또르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여유있게 진행할수 있었으며 그 질도 철저히 보장할수 있었다. 군일군들은 운반작업에서 적지 않은 품을 말고있는 탈구지수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사업전반을 추켜세운것도 좋다.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수리정비에 힘을 집중하면서 그밖의 다른 탈곡기들도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군에는 강냉이밭면적이 적지 않다. 그만큼 강냉이를 빨리 탈곡하는것은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수리정비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지난해 이 탈곡기를 리용해본데 의하면 종전에 리용하던것보다 여러모로 좋다는것이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시간당 연유소비량이 적은 반면에 낟알털기속도가 높고 정선작업까지 할수 있었다. 그러니 원간한 작업반의 낟알털기를 이틀이면 얼마든지 끝낼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마음대로 이동할수 있어 이삭운반작업공정을 줄이고 운반도중 생길수 있는 낟알허실을 없애는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즉 이 탈곡기는 군적인 강냉이농사결속을 지난 시기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할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군일군들은 언제든지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를 리용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중시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탈곡기수리정비도 다그치는 한편 전력공급이 긴장한 경우에도 낟알털기를 할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현실적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군일군들의 예견성있고 치밀한 작전에 따라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온 군이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선 영예드높이 부속품생산과 농기계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모든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베기와 농작물비배관리로 바쁜 속에서도 탈곡기수리정비를 비롯한 농사결속준비를 잘해나갔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본사기자 황철민

콩재배방법을 개선하여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콩농사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입니다. 콩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콩생산을 늘일수 없습니다.》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콩농사에 힘을 넣어 지난해 그전보다 정보당 2배이상의 소출을 낸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좋은 전망을 내다보고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콩농사에 품을 들인데 비해 생산실적이 시원치 못하였다. 이런 사실을 놓고 관리위원장 김영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깊은 자책속에 찾게 된 교훈이 있었다.

생산자대중의 열의가 아무리 높아도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가 안받침되지 못하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콩농사작전을 세워나갔다.

우선 당의 콩농사방침을 놓고 연구를 깊이하는 과정에 콩재배기술과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콩생산을 늘일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받아들인것이 콩뿌리자름모재배였다.

기사장 림형일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 방법은 콩의 원뿌리를 잘라주어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잔뿌리가 많으면 그만큼 뿌리혹균수가 많아지고 단백질합성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콩농사에서 성과를 본 다른 단위들의 경험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먼저 모든 농장원들이 이 방법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학습을 앞세웠다.

또한 농산물3작업반에 시험포전을 꾸리고 실물을 통한 보여주기사업을 여러차례나 조직하였다.

우월성은 실천에서 증명되였다. 모판에 씨뿌리기를 하는 조건에서 직파할 때보다 종자소비량이 80%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모판에서 길이를 맞추어 삽으로 모를 뜨는데 이렇게 하니 뿌리를 자르는데 드는 로력도 따로 조직할 필요가 없었다.

결과 종전의 재배방법에 비해볼 때 초기생육이 좋아졌다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농장의 일군들은 일덧비료주기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과학적으로 짜고들었다.

콩은 작물들중에서도 잎덧비료주기효과가 큰 작물이다. 농장에서는 콩의 이 특성을 리용하여 화학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를 혼합하여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를 전후하여 잎덧비료주기를 오후 3시이후에 5-7일간격으로 5-7회정도 하였다. 이때 비료혼합비를 기술일군들이 책임지고 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얻은 실리는 컸다. 비료소비량이 훨씬 줄어들고 생육이 좋아졌다.

농장의 일군들이 콩농사에서 중시한 문제의 또 하나는 콩대늘혀주기였다.

콩은 일수가 많기때문에 통기조건이 불리하다. 결국 콩일의 빛합성에도 지해를 주게 된다.

일군들은 여러가지 참고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에 콩대늘혀주기를 하면 이 점을 극복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즉 이랑을 따라가면서 기둥을 사선으로 세워주고 새끼줄을 늘여 콩대들을 늘혀주면 빛과 통기조건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었다.

별로 품을 들이는것도 아니였지만 소출을 높이는데서는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높은 콩생산성과는 문제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한다.

이들의 경험은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목표밑에 만족을 모르고 노력할 때 반드시 알찬 성과가 뒤따른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물베기실적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점령을 위하여 물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실적을 훨씬 높이였다. 이 성과는 당의 의도대로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치밀하게 작전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농장일군들의 사업기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이려면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농장에서는 올해에 물거름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잎덧비료주기, 논물관리, 병해충피해방지대책,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등 당면한 영농공정으로 로력이 매우 긴장하였다. 이와 함께 물원천이 제한되여있다보니 시작부터 물베기실적이 오르지 못하였다.

물거름생산계획을 높이 세운 조건에서 그것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일군들의 얼굴에 그늘을 던져주었다.

(물베기실적을 높일 방도가 없겠는가.)

관리위원장 김득성동무는 깊이 사색하였다.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열의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구절구절 새겨가면 관리위원장의 눈앞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해안언선가까이에 있는 높에서 자라고있는 콩들이였다. 농장에는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볼 때 간석지가 많은것으로 하여 도처에 크고작은 높들이 있었다. 그런데 감량이 많은것으로 하여 물베기조건이 매우 어려웠고 운반조건도 불리하였다. 그는 일군들이 앞장에 서면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 이 의견은 일군들의 진적인 지지를 받았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이곳 일군들의 체질화된 사업기풍이다.

농장일군들모두가 작업반, 분조들을 담당하고 내려가 농장원들과 함께 물베기를 하였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어깨를 들이밀며 농장원들을 고무하였다. 특히 관리위원장은 뜨락또르의 만가동보장에서 제일 걸렸던 중요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이 샐도록 뛰여다녔으며 농장원들의 생활상애로를 줄기 위하여 많은 원심을 썼다. 늘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물베기에서 앞장서나가는 일군들의 모습은 농장원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말보다 실천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에 고무되여 농장원들모두가 펼쳐나 수십일동안에만도 수천t의 물을 베였다.

이곳 일군들은 폭과 논두렁의 풀, 밭김매기를 4차이상 하면서 나오는 풀까지도 말끔히 걷어들여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물베기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이상 높이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거름생산목표가 수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치밀한 작전과 지휘, 이신작칙에 달려있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능률높은 광폭미립분무기를 리용하여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하고있다.
—강서구역 보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박영진 찍음

완강한 실천력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홍원군 봉화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일군들의 높은 실천력을 요구하고있다. 홍원군 봉화협동농장 일군들이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대로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면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에서 무엇을 틀어쥐고나가야 하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농장답게 모든 면에서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힘을 주던 군당책임일군의 말을 되새겨보는 관리위원장 최복순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논벼후반기생육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원료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수 있겠는가.)

올해 농장에서는 천알질량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을 첨부하여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과학적으로 주는데서 찾았다.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데 힘을 넣었다.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을 더 첨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잎덧비료로 주었다. 결국 종전보다 이삭이 잘 여물었으며 천알질량도 늘어나 정보당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여기에서 신심을 가진 일군들은 올해에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효능높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베이삭패기를 전후로 하여 기술적요구대로 더 잘 주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 비하여 붕소, 망간 등 영양원소들이 포함된 원료들을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하였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하는 문제를 놓고 만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해당 단위에서 보장해주기를 기다리며 팔짱끼고있을 때가 아니다.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조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에서의 차이, 투쟁기풍에서의 차이에 의하여 좌우된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일군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이 문제를 농장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자.

리당위원장 정원모동무는 어렵더라도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올해농사에서 대풍을 안아오고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일군들을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가 당정책관철에서도 응당 키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는 자각이 클수록 일군들의 결심도 새로웠다.

군당위원장을 비롯한 군책임일군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생산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애국의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원료들을 확보하였다.

앞선 영농방법이 온을 낼 때까지 밀고나가려는 일군들의 이악한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되였다. 농장에서는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10여가지의 원료들을 확보하여 잎덧비료로 주었다. 결과 모든 작업반들에서 천알질량을 높여 올해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조건만 따지면서 누가 도와줄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뛰여들어 주동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길강철

영광의 땅을 빛내가는 값높은 삶

신천군 백석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이 들려준 이야기

청춘의 자욱은 무엇으로 하여 아름다운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신천군 백석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이 새겨온 삶의 자욱자욱에서 찾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청년분조원들은 정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정범한 자욱을 이 땅에 새긴것이 아니였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깊었다.

우리 백석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이다. 우리는 이 땅을 자기의 살붙이처럼 사랑한다. …

정말 그렇다. 사랑하는 내 고향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있는 힘껏 노력하였다. 너탄개기가 정말 힘들었다.

며칠째 인땅을 파냈으나 너탄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무들은 지쳤다. 어떤 동무들은 너탄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일부 동무들이 더욱 힘들어했다. 날씨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해보듯이 몹시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주변에 우등불을 피워놓았다. 한길이 넘는 구렁이에서 바께쯔로 물을 퍼내며 흙을 한삼씩 떠올린다는것이 헐치 않았다. 물속에서 일하니 발은 잠간사이에 퉁퉁 얼어들었다. 우리는 굴할줄 몰랐다. 전투는 계속되였으나 너탄은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

고진감래라고 마침내 그처럼 바라던 너탄이 나왔다. 대략 50여t은 실히 될것 같았다. 우리는 너무도 기뻐 환성을 질렀다. 어떤 동무들은 너무 좋아 너탄을 움켜쥐고 자기들의 얼굴에 비비였고 또 어떤 동무들은 너탄무지에 벌렁 누우며 한참 죽자고싶다고 익살을 부렸다. 그 광경을 보며 동무들은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정말이지 보석을 찾은것보다 더 기뻤다. …

그때 우리는 수십의 너탄으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알곡생산에서 통장혼을 불렀다. 청년분조가 조직된지 몇해가 되지만 이해처럼 높은 알곡소출을 낸적은 없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결산분배모임장소의 앞자리에 우리 청년분조원들을 앉혔다. 시상도 크게 하고 축하공연무대도 펼치였다. 리당위원장동지가 무대에 올라 축하의 노래도 불러주었다.

농장적으로 제일 척박한 땅을 맡아 씨름질하던 나날들과 우리들을 위해 바쳐온 당일군의 진정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가정에서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남먼저 들고 찾아오던 일들이며 리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켜 청년분조합숙을 멋들어지게 꾸려주던 일들…

언제인가 리당위원장동지가 우리 합숙에 찾아왔다. 분조장이 집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로 선출되였다는것이였다. 꿈만 같았다. 그런 뜻깊은 대회에 우리 분조장이 가다니. 누구나 제일처럼 기뻐하며 분조장을 축하해주었다. 그러면서 혹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게 된다면 우리모두의 마음, 우리들의 충정의 맹세도 함께 보고드려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

청년분조원들의 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의 자욱을 새겨왔던가.

이것을 어찌 이곳 청년분조원들의 투쟁이야기라고만 하랴.

우리 당의 품속에서 태어난 이 땅의 수많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사회주의협동밭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고있지 않는가.

그렇다. 당충앙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함께 하며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가 농업전선을 지켜섰기에 우리의 대지가 그토록 아름다운것이리라.

본사기자 최영길

생산정상화의 동음 힘차게 울려간다

대동강맥주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대동강맥주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백년숙적 미제와 끝까지 총결산하려는 불타는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를 안고 인민생활향상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며 일별, 지표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반제계급투쟁의 훌륭한 교과서, 영웅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전투장마다에서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더욱 맹렬히 벌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진행하면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언제나 앞장서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공장일군들이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지배인 리봉학동무와 공장일군들은 질좋은 거르기재를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해 수백리 떨어진 원료생산기지에 자주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수십t의 원토를 확보하였다. 또한 막걸리생산공정현대화대상전선을 석달이상 앞당겨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전설자재들을 앞질러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품이 많이 드는 수백㎥의 지하천정미장공사를 한주일이상 앞당겨 끝내도록 하였다.

공장기술집단은 에네르기절약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중유소비량을 대폭 줄이고 압축기들의 능력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병맥주생산공정의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여 기계설비의 자동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켰다.

맥주직장 양조작업반에서는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였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게 집금물생산에 힘을 넣었다.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안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우리 식의 최강의 주체무기, 주체탄들을 만들어낸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각이한 조건에 따르는 첨가제량을 바로 정하고 온도조절을 비롯한 모든 작업에서 철저히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포장직장에서 만리마대진군의 하루하루를 인민생활향상의 승전포성으로 이어나갈 결사의 각오를 안고 통맥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통포장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씻기공정에서 무균화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통맥주생산계획을 매일 120%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가닿게 하고있다. 7월의 승전고높이 생산에서 자랑찬 승리의 포성을 더욱 힘있게 울려갈 열의에 넘쳐있는 병포장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설비점검보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맡겨진 생산계획을 질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집단적경쟁열풍속에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 병맥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병선별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8월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7월의 축포성을 인민생활향상에서의 비약의 포성으로 이어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만리마의 속도로 폭풍쳐 내달리며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두만강기슭에 타오르는 결사관철, 멸사복무의 불길

무산군의 강하천제방과 도로건설전투에 떨쳐나선 함경북도일군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이다.

우리 당의 생명과도 같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산 화폭이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자기의 폐부로 절감하기 전에는 그 어떤 글이나 말로써 다 전하지 못할 거창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인 무산군의 강하천제방 및 도로건설전투!

우리 이제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군안의 강하천과 도로들을 만년대계로 건설하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함경북도일군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일부를 전한다.

돌 격 앞 으 로!

치열치열 대오가 나아간다.

등에 진 배낭마다에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자력자강》이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써붙인 수천의 대오가 조국의 북변 무산군에 자리잡고있는 빈세평을 넘는다. 그들이 떠나온 곳은 저 멀리 김책시로부터 두메산골 부령군을 비롯한 함경북도안의 여러 시, 군들이다.

대오의 맨 앞장에서 높은 산과 협곡들을 둘러보는 함경북도당위원회 일군 김광용동무의 뇌리에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삼삼히 떠오른다.

지난 6월말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어느 한 사무실에 모여앉은 사람들모두는 놀라운 눈길로 책임일군을 바라보았다.

도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로 무산군의 강하천제방과 도로건설을 위한 돌격대를 조직하자는 그의 제의가 뜻밖이였던것이다.

한둘도 아니고 수천명의 일군들로 돌격대를 조직하면 그만큼 도의 많은 사업에 공간이 생길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우리 일군들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말아안고 뛰여야 할 때입니다. 또 이번 전투는 우리 인민을 위한 일인데 응당 일군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당책임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의참가자들은 가슴속에 묵직하고도 뜨거운 그 무엇이 그득히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함경북도에서는 도안의 4 000여명 일군들로 돌격대가 무어지게 되였다.

당일군 및 행정경제일군, 근로단체일군돌격대였다. 인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란 있을수 없기에, 국토는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기에 도안의 많은 일군들이 스스로 배낭을 등에 지고 사무실을 떠나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더라도 건설해야 할 강하천제방과 도로의 연장길이가 연 수만m에 이르고 처리해야 할 토량만 해도 수십만m³에 달하는 방대한 공사였지만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각오만 높뛰고있었다.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

기세충천한 수천의 대오가 렬차와 자동차로, 도보로 전투현장들에 도착하고 빈세평이래 골짜기마다에 천막들이 전개되였다.

도급기관일군대대, 시, 군급기관일군대대, 공장, 기업소일군대대로 나뉘여진 돌격대는 현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미처 배낭을 풀어놓을새도 없이 불꽃튀는 전투에 진입했다.

박천수라고 불리우는 하천제방공사때였다.

전투가 시작된지 이틀째 되는 날 북방의 차디찬 비가 지꿎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일군대대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중대의 동경철, 박종식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은 온 하루 현장에서 비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수십m³의 막돌을 채취함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기한전에 넘쳐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 일이 있은 다음 전투원들의 투쟁기풍과 열의에 고무된 진옥경, 김선미동무를 비롯한 중대취사원들은 하루에 왕복 수십리길을 오가며 전투원들에 대한 식사를 보장하였다.

지난 6월말 무산군 오봉리의 어느 한 골짜기에 여러명의 사람들이 정도록 서있었다.

시, 군급기관일군대대 김책시중대 지휘관들이였다.

다른 단위보다 녀성전투원들이 많은 중대의 힘으로 엄청난 량의 제방 및 도로공사를 해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것이다.

다음날 아침 중대지휘관들인 김동강, 최성호동무들이 든 천막으로 허영옥, 강경애동무를 비롯한 녀성돌격대원들이 들어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녀성돌격대원들이 지휘관동지들의 가슴이 쭉 펴지도록 북방녀인들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그후 김책시의 녀성전투원들은 자기들이 다진 결의대로 중대가 수백m의 제방 및 도로공사를 앞당겨 끝내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낮에는 남자들과 꼭같이 석축공사를 하면서도 춤과 노래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작업이 끝난 뒤면 전투원들의 장갑이나 작업복을 빨아주느라 한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며…

어찌 이들뿐이랴. 오늘의 전투는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리상복, 박현일동무를 비롯한 명간군중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기계수단을 전혀 댈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순수 마대전과 맞들이전으로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그처럼 어렵게만 생각되던 차유리골짜기의 제방공사를 단 3일만에 끝내는 위훈을 떨치였다.

함경북도일군돌격대가 무산군 강하천제방 및 도로건설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어느덧 두달 남짓한 나날이 흘렀다. 그사이 오봉리와 민봉리, 차유리를 거쳐 강선로동자구, 주초로동자구에 이르기까지 전투현장은 수없이 바뀌였어도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서는 오늘도 이런 신념의 구호가 변함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일군들이여,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돌격 앞으로!

민심의 목소리－이런 일군들과 함께라면…

차유리일대의 강하천과 도로를 일신시킨 함경북도일군돌격대가 무산군 강선로동자구와 주초로동자구에 전투현장을 옮긴것은 지난 7월말이였다.

그때로부터 열흘도 채 못되어 이 일대에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현실이 펼쳐졌다.

지난 시기 장마철이면 잘매없이 흐르던 성천수와 육동골천의 수천m구간에 매끈한 제방뚝이 일떠서고 구불구불하고 비좁은 도로대신 도시의 웬만한 포장도로 못지 않은 드넓은 도로가 끝간데 없이 펼쳐진것이다.

돌격대가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방대한 량의 강하천제방과 도로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던 어느날 전투현장에 찾아온 낯모를 한 할머니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인 안승학, 정성일동무의 손을 꼭 그러쥔채 이렇게 말했다.

《오래간만에 딸네 집에 나들이를 떠났다가 난 그만 길을 헛갈렸나 해서 한참이나 서있었다네. 다른게 천지개벽인가. 정말 고마우이. 우리 원수님께서 키워주신 일군들덕에 이런 호사스러운 길로 나들이를 다 떠나구…》

돌 하나를 쌓고 길 한m를 닦아도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그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나 폐를 끼치서는 안된다는것, 이것은 전투의 전기간 함경북도일군돌격대 전체 전투원들이 자기들의 심장속에 쪼아박은 지론이고 원칙이다.

돌격대가 맡겨진 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고 민봉리전투현장을 떠나던 날이였다.

돌격대원들의 대오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섰다. 자기들의 소박한 성의가 담긴 지원물자를 안고 돌격대원들과 함께 집을 떠난 리안의 주민들이였다.

전투의 나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농장원들의 살림을 걱정해주며 그토록 살뜰한 정을 기울이던 일군들을 이렇게는 보낼수 없다고, 후날에도 꼭 찾아가보기 위해 그들의 새 전투현장과 숙소를 제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돌아서겠다며 허발에서 콧장냉이를 서둘러 파안고 기어이 대오를 따라나선 그들을 과연 무슨 힘으로 막을수 있었으랴.

지난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금패천지구의 물길공사에 참가한 도급기관일군대대 함경북도대흥관리국 당일군인 강석태동무는 지휘관들을 이끌고 기상시간보다 한시간 빠른 새벽 4시에 천막을 나섰다.

며칠전 지휘관들이 앞장에 서서 전투의 여가시간에 리유치원을 벌방부럽지 않게 현대적으로 꾸려줄것을 토의결정했던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새벽 수십명의 사람들이 유치원마당에 들어섰다. 김철운, 최철진, 한성남동무를 비롯한 도대흥관리국과 도도매상업관리처, 도방송위원회 전투원들이였다.

그들중 누군가가 짐짓 노여운 기색을 지은채 강석태동무에게 말했다.

《이런 좋은 일을 지휘관들끼리 슬쩍 해치우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산골의 새벽대기를 헤가르며 울려퍼지는 호탕한 웃음소리…

이렇듯 전투의 나날 함경북도일군돌격대가 지나간 모든 곳에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활짝 꽃펴났다.

긴장한 전투속에서도 민봉리소재지를 일신시키고 차유고급중학교 태곡분교를 산골분교의 본보기로 꾸린 리광연, 박용권동무를 비롯한 시, 군급기관일군대대 청진시중대와 수남구역중대 전투원들, 주민들과 길손들을 위한 정갈한 샘터와 함께 빨래터까지 규모있게 만들어준 포항구역중대와 송평구역중대 전투원들, 먼지만 날리던 학산마을의 공지에 스스로 아담한 정각과 공원을 일떠세운 도급기관일군대대 지휘관 서영수동무와 도안의 의료부문 일군들…

이런 참된 일군들에 대한 무산군인민들의 찬양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심장으로 다시금 새겨안는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 진정한 충복으로 살때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민심의 웨침, 시대의 찬가로 이 땅에 영원히 울려퍼지리라는것을!

아 름 다 운 이 야 기

누가 말했던가. 돌격대시절은 인생을 배우는 하나의 청춘대학이라고.

그러나 무산군의 강하천제방과 도로건설전투에 참가한 함경북도일군돌격대의 대부분은 청춘시절을 벗어난 중년기이거나 로년기의 사람들이다.

도급기관일군대대에는 《할머니돌격대원》들로 불리우는 녀성일군들이 많다.

당일군들인 황봉화, 리영숙, 리상란, 오영희, 안수복, 리연화, 김영실동무들은 나이로 보면 손자, 손녀들을 거느린 로년들이지만 그들모두는 들끓는 전투장에 스스로 달려나와 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승벽심이 센 전투원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나이가 무슨 대수이랴.

돌격대가 빈세평골짜기에 배낭을 푼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들끓는 전투현장의 그 어디서나 돌격대원들과 꼭같은 체복을 입고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는 한 녀성이 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한은희동무이다.

조국의 북변에서 거창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접한 즉시 평양을 떠나 전투장의 한복판에 뛰여든 그에게는 늘 가슴에 품고다니는 수첩이 있다.

《작품창작을 위한 취재라기보다 북방의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매혹,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한 심장의 기록이다. 일터와 초소, 나이와 직무는 각각이여도 지휘관으로부터 마지막전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훌륭하고 참된 사람들인가.

돌격대지휘관들인 도인민위원회와 도당위원회의 김정호, 김광용동지들…

아마도 돌격대적으로 제일먼저 새날을 맞고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이 두 지휘관을 앞자리에 세울것이다.

…

오늘도 전투의 하루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선률로 시작되였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방송원 리해영동무는 전국 돌격대의 기상나팔수인셈이다. 언제인가 그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은가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쳐 쓰러졌다가도 자기네 전투현장에 먼저 와달라고 절절히 부탁하는 돌격대원들생각에 용기를 내여 일어나군 합니다.〉

…

대형삼차운전수 왕복성동무는 유쾌한 청년이다. 그는 하늘을 향해 번쩍 추켜든 〈바가지〉속에서 잠도 자고 목욕도 한다. 어제 아침 한밤을 꼬박 새우느라 미처 세면도 하지 못한 그에게 말했다.

〈처녀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나요.〉

그러나 대답대신 능청스럽게 두눈을 풍긋거리는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자기가 실언했다는것을 느꼈다. 모두 일군들로 무어진 돌격대에서 처녀라니…》

* *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단호히 쳐갈기며 인민의 행복과 국토의 만년대계를 위한 과감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함경북도일군돌격대의 투쟁에 대하여 몸소 료해하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믿음, 그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돌격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인적없는 산발과 사품치는 강물을 넘고넘으며 조국의 북변 두만강기슭에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성스러운 자욱을 줄기차게 새겨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남 호

(현지에서 전송)

전국도시경영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도시경영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9일과 3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도시경영과학연구소,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 기술자,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5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발표 25돐이 되는 올해 도시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열린 발표회에는 170여건의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이번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특색건축기술이 도입된 건물들과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서술한 론문들이 소개되였다. 또한 건물들의 랭난방보장과 오수정화, 원림록화와 능률높은 기술수단들의 개발을 비롯하여 도시경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상하수도지리정보체계》, 《층축건물의 내진진단방법》, 《도로바닥선치는 기계》, 《손상된 비대칭골조식산업건물의 부분적인 보강방법》, 《나무모생산을 위한 방울식자연흐름관수체계》 등 도시관리의 현대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십건의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도시경영사업의 과학기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과 관련한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과 관련한 과학기술발표회가 29일과 30일 철도성 정보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철도성 철도연구원,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과학교육, 철도운수부문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전기 및 정보기술분과와 기계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철도운수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하전동차의 설계와 제작, 운영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이에 토대하여 더욱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8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지하전동차고속도차단기의 설계계산체계, 지하전동차공기제동체계, 지하전동차비동기견인전동기 전자기체계설계계산, 지하전동차 새 대차 원판식제동장치를 비롯한 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기간 최근 지하전동차대차와 견인조종체계의 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발표회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철도운수부문의 과학화, 현대화를 다그치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지하전동차를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리홍윤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 사적자료들을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단장은 감상록에 청년들을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썼다.

대표단은 이밖에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 전자도서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들은 다음과 같다.

13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4일: 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15일: 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1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당정책의 생활력을 보여준 실천가들

황북종합대학 교원대학에서

최근 황북종합대학 교원대학으로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큰 덕을 보고있는 대학의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해서이다.

얼마전 대학을 찾았던 우리는 태양빛발전체계를 완성하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감동깊게 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학장으로 임명되여온 고성심동무는 대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다기능화된 강의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찾았다.

그러자면 대폭 늘어난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정상가동할수 있게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했다.

이 어려운 과제를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학장의 머리속에는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자주 오르군 하던 정상환동무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올랐다.

최근년간 풍력과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한 대학기숙사조명체계를 완성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을 개선해놓은 그였다.

그의 피타는 사색과 열정이 슴배여있는 효률높은 조명체계를 바라보는 고성심동무의 생각은 깊어갔다.

기발한 착상이였다. 크지 않은 풍력발전기 1대와 태양빛전지판 2개, 축전지 2개와 자동조종장치로 100여개의 기숙사호실들과 복도의 조명을 보장하는 한편 수십대의 전자풍금에 대한 전력보장도 하여 풍금실기수업과 련습을 중단없이 진행하고있으니 얼마나 실리가 큰가.

학장은 이런 인재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았다. 더우기 기숙사생들을 위해 전공분야가 아니지만 스스로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진행해온 정상환동무의 깨끗한 교육자적량심을 보석처럼 더욱 빛내여주고싶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온 학장은 당조직과 토의한 후 정상환동무를 만나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대학의 전기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정상환동무는 자기를 굳게 믿어주는 책임일군의 그 마음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태양빛발전체계에 대한 연구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대학일군들은 정상환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를 뭇고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보장해주었다. 일부 사람들은 연구와 설계, 프로그람개발, 조립완성 등 모든것을 과연 자체의 힘으로 해 해낼수 있겠는가 하고 우려하였다.

일군들은 정상환, 리성직동무들이 신심을 가지고 탐라붙도록 현장에 자주 나가 구체적으로 토론도 해주고 애로되는 문제들을 놓고 함께 마음을 썼다.

이 사업을 당정책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중한 문제로 보고 우리 힘과 지혜를 합쳐 기어이 성공시키자고 하는 초급당일군인 리철수동무의 호소는 기술혁신조성원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책임자인 정상환동무는 몸이 몹시 불편한 속에서도 온 대학이 연구성과를 기다린다면서 철야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되였다. 태양빛전지판들이 태양방향을 따라 돌아가도록 자동조종을 실현하자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모형을 만들어 아침과 저녁, 겨울철과 여름철조건까지 따져보면서 충분한 모의실험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수평축자동회전을 위한 설계를 완성하고 그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그렇게 하면 자그마한 직류전동기 한대로 30여개나 되는 100W짜리 태양빛전지판들을 쉽게 자동조종할수 있었다. 전동기의 자동조종에 소비되는 전력은 생산된 전기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자재도 아주 적게 들었다. 실지로 이들은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대학에 있던 유휴자재를 모아 회전틀제작에 리용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의 첫 성과로 초불놓은 태양빛발전체계를 완성하여 내놓았다.

태양빛전지판을 회전시키는 조종기술과 교류전력선을 리용한 직류전송기술, 태양위치를 추적하는 기술로 이루어진 이 발전체계는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었다.

30여개의 태양빛전지판들이 자체의 동력에 의하여 동시에 태양방향으로 자동조종됨으로써 고정설치된 80개의 태양빛전지판이 생산하는것과 맞먹는 전기를 얻을수 있었다.

또한 교류전력선을 리용하여 직류전송을 실현함으로써 많은 축전지들과 전력변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였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숙사에 자동양수체계를 연구도입하는것을 200일전투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결과 태양빛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리용하여 30m높이까지 지하수를 퍼올려 기숙사생들의 먹는물과 생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게 되였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한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이를데 없다.

수많은 다기능화된 강의실들과 강좌사무실들, 외국어시청각실, 원격교육실 등에 있는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정상가동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다.

많은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로 성장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교원양성부문대학 실험교수경연에서 림철동무가 1등을 쟁취하였다는 소식은 온 대학을 흥성이게 하였다.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교수방법들이 끊임없이 탐구도입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부쩍 뛰어올랐으며 기숙사의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더욱 개선되였다.

한편 대학구내의 잔디밭물주기도 자동분무기로 진행하고있다.

어디 이뿐인가.

밤에도 교사들과 기숙사의 조명등이 언제나 환하게 켜져있어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저기가 교원대학이로구만 하고 단숨에 알아맞힌다는 새 풍경도 이곳 교육자들이 꼽는 자랑중의 하나였다.

오늘 많은 참관자들이 대학에 찾아와 감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 교육자들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긍지와 자부심에 한껏 넘쳐있다.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이곳 대학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명훈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강계시 외룡동 78인민반을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3중충성의 7월11일붉은기인민반의 영예를 지닌 강계시 외룡동 78인민반을 찾은데는 사연이 있었다.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킨것은 물론 인민반이 단합되고 화목하다고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기때문이였다.

생활문화화립에서 모범을 보여 여러차례에 걸쳐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고 전국도대항체육경기와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체육경기, 민속유희오락경기에 인민반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녀성들이 참가하여 련이어 우승하였다는 동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78인민반이 시작되는 도로입구에 들어섰다.

《인민반원들이 떨쳐나 이 도로를 멋들어지게 포장하여놓았습니다.》

일매지게 포장된 넓은 도로를 따라 바라보이는 인민반지구의 전경은 말그대로 선경이였다.

새로 지은것처럼 아담하게 꾸려진 아빠트, 특색있게 조성한 화단들과 크고작은 화분들에 아름답게 피어난 갖가지 꽃들, 체육기재들이 들어찬 휴식터…

우리는 마침 꽃밭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인민반장 김상련동무를 만나게 되였다.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계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시를 더 잘 꾸릴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반원들은 밤깊도록 한자리에 모여앉아 의논하였다.

모든 세대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는 인민반장의 호소에 주민들은 팔벗고나섰다.

세대주들은 모래와 세멘트, 칠감을 비롯한 자재들을 맡아나섰다. 모두가 떨쳐나 짧은 기간에 인민반구역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고 아빠트개건보수도 진행하였다. 화단을 새롭게 조성하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도 심었다. 인민반원들은 밤늦게까지 휴식터와 놀이터를 건설하고 집집마다 서로 경쟁을 하며 알뜰히 꾸려나갔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에 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인민반원들은 평양에 가있는 기간 여러 공원들과 놀이터들을 돌아보며 특색있는 운동기재들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돌아왔고 세대주들은 기재들을 구입하기 위해 애썼다.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인민반은 몰라보게 변모되여갔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들이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으로, 인민반은 3중충성의 7월11일붉은기인민반의 영예를 지니고 시적으로나 도적으로 본보기단위로 되였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여기에는 앞채를 메고나간 인민반장 김상련동무의 수고가 깃들어있다고 인민반원들은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김상련동무는 내 집일, 네 집일이 따로 없이 언제나 인민반을 위해 헌신하고있었다.

영예군인의 집을 꾸려주고 텔레비죤과 땔감은 물론 보약재와 부식물까지 안겨주며 그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보살펴준 이야기,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송영심녀성의 가정을 친혈육처럼 돌봐주며 아이들의 생일상도 성의껏 차려준 이야기,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이야기 등 인민반장에 대한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여러 가정들을 돌아보았다.

어느 집이나 한결같이 알뜰하게 꾸려져있었다.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인민반원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이런 긍지가 넘쳐나고있었다.

오늘도 이곳 인민반원들은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흥

화목하고 정한 정 넘치는 사회주의 나라

돌격대원들이 자랑하는 탄전의 녀인

2.8직동청년탄광 직맹돌격대원들의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2.8직동청년탄광에는 일잘하기로 소문난 직맹돌격대가 있다. 돌격대 대장 김영택동무는 오래동안 탄광에서 일해오는 로탄부이다. 탄광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누구나 대장아바이라고 존경하는 그를 돌격대원들은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따른다. 한집안식구처럼 화목하고 전투력있는 이곳 돌격대원들에게는 친아버지같은 대장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생활을 늘 세심하게 돌봐주는 누이도 있다.

얼마전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직맹돌격대원들로부터 《돌격대의 누나》로 불리우는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는 2.8직동청년탄광 강성경 로동자 김금순동무였다.

돌격대가 매달 맡겨진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자체의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 탄광에 소문을 내게 된데는 김금순동무의 노력도 깃들어있다는 돌격대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걸음을 강성갱으로 향하게 하였다.

김금순동무는 탄전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였다. 탄광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우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남편을 따라 탄광에 온것은 몇년전이였다.

탄광일에 생소한 그는 탄광에서 일하는 직맹돌격대원들이 누구보다 돈보였다. 탄광의 어느 단위보다 늘 앞장서 달렸던것이다. 힘들지 않는가고 물을 때마다 돌격대가 남들의 뒤나 따라가서야 되겠는가고 하는 그들이 더욱 미더워 어느날 삶은 감자를 들고 돌격대를 찾아갔던 그는 호미를 하나씩 들고 대장 김영택동무를 따라나서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알고보니 교대가 끝난 후이면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일군 부엌밭을 가꾸고있었다.

김금순동무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런 혁신자들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은 없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김금순동무는 줄곧 이런 생각을 했다. 그날 그는 부모들과 남편에게 돌격대원들을 적극 지원할 마음을 내비쳤다. 그때부터 그는 돌격대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진정을 바쳤다.

돌격대원들을 자주 찾아가 녀인의 다심한 손길로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었고 명절날은 물론 가정에 색다른 음식이 생기여도 돌격대원들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들이 늘 락천적으로 살며 생활하도록 가정에서 보려면 액정텔레비존도 서슴없이 들고나와 그들의 침실에 놓아주었다.

지난해 어느날이였다. 여느때와 같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돌격대를 찾았던 김금순동무는 우연히 한 돌격대원이 빨래비누가 아니라 자그마한 세수비누로 작업복을 빨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다른 동무들의 옷들도 모두 빨아주다보니 빨래비누가 모자랐던것이였다. 그날 김금순동무는 자신을 질책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는 달마다 안고가는 지원물자들에 가루비누를 넣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오직 돌격대원들을 고무함으로써 석탄생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다는 긍지로 만족하였을뿐이다.

올해 7월 뜻밖에 갱이 붕락되였을 때였다.

그때에도 김금순동무는 성의껏 준비한 후방물자를 가지고 전투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등을 떠밀며 어서 집으로 가보라고 말하는 탄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아직 멀었어요. 탄광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말이에요. 내가 동무들처럼 막장에 들어가서 굴진을 하겠나요 아니면 탄을 캐겠나요. 그러니 제 마음도 함께 더 많은 탄을 캐주세요.》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의 토로는 탄부들의 가슴을 꽝꽝 두드리였고 수백수천마디의 정치사업을 대신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맹렬한 점사전을 벌려 며칠은 걸려야 한다던 갱복구전투를 단 몇시간동안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김금순동무가 탄부들을 위하던 나날에 꽃피운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전할수는 없다. 그러나 탄부들이 캐내는 한줌한줌의 석탄에는 김금순동무와 같이 탄부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며 그들과 함께 석탄전선을 지켜선 소박하고 진실한 탄전의 녀인들도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싶다.

김 국 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이 극도에 이른 오늘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는 애국적소행들이 더 많이 꽃펴나고있다. 아래에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소행을 전한다.

신의주시의 녀맹원들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제재책동에 철추를 내리는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하고 인민군대가 굳건해야 가정의 행복도 있고 자식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고 하면서 많은 원호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진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날강도 미제를 모조리 죽탕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할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었다.

수안군녀맹위원회 부위원장 리복순동무와 금야군 과학기술위원회 새 기술보급소 장영수동무도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고 하면서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마음속의 군복만은 언제나 벗지 않고있는 피천군 음의 영예군인 홍광혁동무도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수놓아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에게 많은 원호물자를 보내주었다.

얼마전 그는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면서 자기의 몫까지 함께 철천지원쑤 미제를 때려부시고 키어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의 유가족들은 삼지연군꾸리기를 적극 지원하였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 한생을 충직하게 빛내인 투사의 넋을 꿋꿋이 이어갈 맹세를 안고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들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왔다. 그들은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꾸리는 사업에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고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찾아가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평안남도당학교 교원 김성현동무와 그의 안해 박춘미동무는 오랜 세월 정성시에 살던 영예군인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조국을 지켜 피흘린 영예군인들을 우대하고 잘 돌봐줄데 대한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갈 한마음을 안고 그들은 지난 기간 영예군인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아낌없는 진정을 바쳐왔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온갖 지성을 다 바쳐온 김성현, 박춘미부부는 영예군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안해를 친자식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애국적소행은 나어린 학생들속에서도 발휘되고있다.

평천구역 안산소학교 4학년 변충현학생은 삼지연군에 달려가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사업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부모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겨주었다. 그의 부모인 변영일, 한혜순동무들은 아들이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뿐아니라 좋은일하기에서도 언제나 모범이 되도록 늘 관심하고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그들은 아들과 함께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을 찾아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청단군 청송소학교 리희성학생도 학생소년들은 공부도 잘할뿐아니라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키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가지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있다.

부모들과 함께 청단군 음에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의 가정을 직극 돕고있는 리희성학생은 얼마전 자기가 키우던 100여마리의 토끼로 정성껏 곰을 만들어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들과 같은 애국충정과 미풍의 소유자들이 많아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는 날로 더욱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일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각지 독자들이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를 담은 편지들을 본사편집국으로 계속 보내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대동강구역 의암동에서 사는 장영희동무가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얼마전 남편의 생일때였습니다. 대동강구역직매점의 일군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고 저의 집으로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영예군인인 남편의 건강에 대하여 늘 마음써온 그들이였습니다. 정말이지 남이라 할수 없는 한식솔, 친형제들인 그들의 소행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장영희동무 하나만의 심정이랴.

선교구역 산업2동에서 살고있는 함정옥동무도 영예군인인 남편을 위해 수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3대혁명전시관 공무동력직장 청년동맹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면서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아름다운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가꾸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였다. 영예군인들인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서 살고있는 한준용,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살고있는 천광석, 함주군 음에서 살고있는 박광혁동무들은 여러해동안 자기들의 건강과 가정의 살림살이를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건축과학기술교류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함경북도도매상업관리처 일군들과 종업원들, 함주군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리성일동무와 함주군미래원 김경석동무의 가슴뜨거운 소행들을 전하여왔다. 강동군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영철동무는 온갖 성의를 다하여 새 집을 지어준 군일군들의 소행에 대하여 전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우리 인민은 로동당만세를 심장으로 웨친다고 했다.

각지의 전쟁로병들도 자기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성심성의껏 돌봐주고있는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을 널리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편지들을 보내오고있다.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사는 전쟁로병 문태검로인은 우연히 알게 된 자기를 어려해동안 친아버지처럼 돌봐주고있는 평양시인민보안국 일군인 리영철동무의 소행을, 득장구에 사는 김영흠로인은 생일을 뜻깊게 쇠도록 생일상도 성의껏 마련해주고 때없이 찾아와 생활상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군 하는 득장구당과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소행을 전해왔다. 청진시 송평구역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리춘모로인은 함경북도교려약생산관리처 일군들의 소행을 전하면서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떠받들고 따뜻이 돌봐주는 이런 고마운 일군들을 대할 때마다 조국보위성전에 청춘을 바친 긍지가 가슴에 넘쳐난다고 했다.

꾸밈도 가식도 없는 진정에 넘친 독자들의 편지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고마움에 넘친 이들의 이야기를 다 합치면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찬가가 된다는것을.

정 영 철

해군용사가정과 맺은 뜨거운 혈육의 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11월 어느날이였다. 보통강구역검찰소의 어느 한 사무실에서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일군들이 《로동신문》에 실린 한장의 사진에 눈길을 못박고있었다.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중의 한사람인 김설윤동무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몸에 품고있은 입당청원서를 바라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입당할 때 당기앞에서 엄숙히 다진 맹세대로 한생을 살기 위해 당원증과 함께 입당청원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 참된 조선로동당원,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이 어떤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인가를 말없이 전해주는 입당청원서였다.

그 입당청원서의 주인공인 김설윤동무의 부모가 보통강구역 세거리동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검찰소의 일군들은 스스로 모여앉았다. 오래도록 말은 없었지만 뜨거운 동지적리심을 안고 격동치는 그들의 마음은 한결으로 흐르고있었다.

이윽고 소장 정영철동무가 조용히 말을 떼였다.

《조국보위초소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친 해군용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의 부모의 친자식이 되여줍시다.》

그날 사무실에서는 해군용사가정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가 밤깊도록 계속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소장 정영철동무와 일군들은 김현봉동무의 집을 찾았다.

《김설윤동무를 대신하여왔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을 친아들딸로 생각해주십시오.》

초면부지였지만 그들의 말에는 정이 푹 배여있었다. 오래도록 이야기도 나누며 집안살림살이형편도 알아보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구역검찰소일군들의 모습은 해군용사부모의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졌다.

이렇게 김현봉동무의 가정과 첫인연을 맺은 검찰소일군들은 갖가지 생활용품들도 갖추어주고 날씨가 추워지면 새 이불도 마련해주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그때부터 보통강구역검찰소에는 《우리 가정방문일지》라는 류다른 책이 생겨나게 되였다.

해군용사가정을 위하는 검찰소일군들의 진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들은 때없이 해군용사가정을 찾고찾으며 참된 동지적의리심을 다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았다. 김명철, 김광철, 강금철, 원성철동무들이 건강에 좋은 보약과 식료품들을 안고왔고 리철준동무는 바쁜 출장길에서도 몸보신에 좋은 산물을 마련해왔다. 해군용사의 녀동생이 새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문성국동무는 부엌세간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윤희동무가 마련해준 운동기재며 최국선, 태성혁, 박성일, 황효범동무를 비롯한 검찰소일군들이 쏟아붓는 친혈육의 정이 해군용사가정에 따뜻이 감돌았다.

어느해 여름이였다. 김현봉동무의 집으로 리광철동무와 그의 안해가 들어섰다. 마련해온 옷과 신발을 내놓으며 리광철동무의 안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저도 해군용사가정의 한식솔이 되겠습니다.》

리광철동무와 그의 안해는 김현봉동무와 리경애동무의 식성까지 헤아려가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해군용사가정을 위한 일이라면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군 했다.

3.8국제부녀절에도 선참으로 찾아와 아름답게 꽃다발과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축하해주는 검찰소일군들앞에서 김현봉, 리경애동무들은 목메인 소리로 뇌이군 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것만 같다고.

당에서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용사의 가족이라고 내세워주고 따뜻이 돌봐주고있으니 일없다고, 사업이 바쁜데 자기들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이르는 김현봉, 리경애동무들에게 소장 정영철동무와 검찰소의 일군들은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해군용사들의 표주가 되시여 그들의 넋과 혁명정신이 영원히 빛나도록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였는데 그이의 전사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할뿐이라고.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이런 고결한 사랑이 혈육의 정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글 본사기자 조 경 철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혁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결코 먼 옛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가 민족재생의 거름, 새 생활창조의 환희와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인 그날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새 조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은 민족사적인 대경사였을뿐아니라 착취제도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해방전 우리 인민의 계급적처지는 그야말로 노예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속에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았다.

당시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이였고 인구의 절대다수가 지주의 땅을 얻어부치는 가난한 농민이였다. 반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지주의 수는 총농가호수의 3.3%밖에 안되였다. 제땅에서 자기의 손으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가 존재하고있던 당시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그 소박한 소원은 한갖 꿈에 불과했다.

해방전 대동군 시족면 성문리(당시)에는 강가성을 가진 지주가 살고있었다. 그놈은 어느 한 소작인에게 제일 나쁜 땅을 골라주고는 엄청난 량의 날알을 소작료로 바칠것을 강요했다.

소작인은 그래도 아글타글 애써 농사를 지으면 얼마간의 날알을 손에 쥐여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몸내어름내 멀의멀 고생을 다하며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워낙 척박한 땅인지라 팔십 10섬밖에 거두지 못했다. 강지주놈은 계약된 소작료보다 적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것을 단 한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갔다.

분개한 소작인은 지주놈에게 달려들었으나 그의 처지가 다르게 될수는 없었다. 당장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는지라 또 다른 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머슴군이 바로 해방후 토지개혁정형을 료해하러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주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물소 문제에 이름까지 써주신 박장반농민이다.

로동자들의 처지도 다를바 없었다. 해방전 우리 나라 산업의 주요명맥을 틀어쥔 일본자본가놈들과 친일자본가놈들은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해 로동자들을 짐승보다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자본가놈들은 공장, 광산 등의 모든 작업현장들에 심장, 감독들을 배치해놓고 로동자들의 작업을 감시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때려죽일 권한까지 주면서 로동자들에게서 마지막 한방울의 피땀까지 짜그리 짜내였다.

《조선사람들은 노예였다. 밀차를 들어서 밀었는데 밀차를 밀 때에는 뛰면서 밀어야 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쥔 감독이 따라다녔기때문이다. 나는 그때 말을 가지고있었는데 말도 그렇게까지는 부리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어느 한 광산에서 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한 일본인의 말이다.

자본가놈들은 로동자들을 자들의 치부를 위한 한갖 말하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들이 지쳐 쓰러지건말건 상관없이 로동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단위시간내에 로동강도를 무한정 높이는 방법, 임금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고를 리윤을 짜내였다. 오직 돈밖이에만 눈이 어두워 아무러한 로동보호시설도 갖추어놓지 않은 작업장에 로동자들을 마구 내몰아 그들을 혹사시키거나 생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일본자본가놈들이 조선사람들을 얼마나 마소처럼 부려먹었는가 하는것은 일본의 한 출판물이 당시 일본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건설된 수력발전소의 전력 1kW당 건설비는 421원이였는데 조선로동자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부전강발전소는 1kW당 그의 3분의 1도 안되는 137원이였다고 쓴데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인민이 자본의 노예, 땅의 노예가 되여 비참하게 살던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하다면 우리는 왜 오늘도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쓰라린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가.

몇해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최근 장애자, 로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이 소금밭에 팔려가 12년동안이나 노예생활을 한 사건이 보도되였다. 그들은 직업소개업자에게 속아 자기도 모르게 소금밭업주에게 팔려갔고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채 작목, 쇠몽둥이에 맞아가면서 혹사당했다.

어느 한 예술박물관에서도 온갖 규범을 어기면서 로동자들의 피땀을 빨아온 노예의 일터가 드러났다. 그들의 거처지는 난방은커녕 쥐들이 들락거리는 음습한 창고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다. 가혹한 착취에도 군소리 한번 못하며 죽음에로 가까이 간 로동환경에서도 저항할 용기가 없는 사회,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정등을 빼앗긴 사회가 바로 노예사회이다.

이런 죽음의 일터를 기업이 유지하고 운영할수 있는 배경에는 자본의 거대한 사회경제적지배력이 존재하기때문이다. …

자본에 짓눌린 이 사회는 노예사회로 가까이 가고있다. 노예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에 대한 제재와 조정의 역할을 국가가 기피할 때 나타난다. 이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며 결국 강자들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

우리 인민이 온갖 착취와 압박속에 신음하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먼 옛이야기가 아니다. 남조선사회와 같은 착취사회, 현대판노예사회가 지금도 지구의 곳곳에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원쑤들이 아직도 이 땅을 넘보며 침략의 칼을 벼리고있기에.

사람들이여,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절대로 잊지 말자!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계급의 총창,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자!

본사기자

단상

《붉은 버드나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얼마전 나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살인만행의 고발장인 수산리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들의 범죄의 소굴이였던 면《치안대》본부건물로 들어가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의 눈앞에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열성농민 홍기행의 7살 난 딸을 비롯한 애어린 어린이들을 짤아죽인 무게가 2t이나 되는 연자방아가 안겨들었던것이였다.

철부지어린애들을 열성농민, 빨갱이들의 종자라고 연자방아로 짤아 무참히 학살한 야수들!

고사리같은 손을 내흔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어린 소녀, 그 연자방아밑에서 금시라도 뼈가 으스러지고 장기들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 어린것들의 선지피가 흐르고 흘러 연자방아를 적시고 흙을 적시였던 그 자리에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한그루의 버드나무가 키높이 자라서있다.

아마도 수산땅의 후손들이 그날의 원한을 잊지 말자고, 한을 안고 숨진 애어린 생명들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이 자리에 그 어린이들처럼 애어린 버드나무를 심었으리라.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이제는 그 나무도 거목으로 자랐다.

푸르고 부드럽게만 느껴오던 버드나무였지만 수산땅의 버드나무는 원한을 품고 자라서인지 줄기도 가지도 일도 온통 붉게 물들어있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오늘도 애처롭게 숨진 그날의 어린이들의 절규를 담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웨치는것만 같았다.

60여년이 흘러 이 연자방아에는 푸릇푸릇 이끼가 돋았다. 하지만 이 어린이들의 원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우리의 복수심에는 절대로 이끼가 껴서는 안된다라고…

그렇다. 붉게만 보이는 버드나무의 이 웨침이야말로 우리 새 세대들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잊어서는 안될 피의 절규이다. 이 절규를 새겨주는 버드나무, 원한에 물든 《붉은 버드나무》는 앞으로도 찾아오는 수천수만 사람들의 가슴속에 피의 절규를 새겨주며 영원히 서있을것이다.

윤 은 심

백년숙적 일제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운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황혼이 어둠으로 화하는것은 시간의 법칙이다

《사나운 개 코등이 아물 날 없다.》, 이것은 오늘 미국의 가련한 몰골을 표현하는데 꼭 들어맞는 격언이다.

지난 8월 21일 새벽 5시 24분경 날이 훤히 밝아오는 속에서 싱가포르항에 들어서려던 미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존 에스. 맥케인》호에 비상경보를 알리는 싸이렌소리가 귀청을 뚫었다.

해저들의 공격인가 아니면 누구의 미싸일공격을 받았는가…

구축함을 강타하여 절망과 공포에 질리게 한것은 뜻밖에도 3만t급 리베리아화물선박이였다.

10명의 승조원이 개죽음을 당하고 선체가 심히 파괴된 《존 에스. 맥케인》호는 전투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반면에 리베리아선박은 선체의 일부만 가볍게 손상되였을뿐 단 한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은채 아무 일 없은듯이 유유히 목적지에로 항행을 계속하였다.

결국 전투함선이 일반화물선박과의 충돌에서 대참패를 당한 격이 되였던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눈살을 찌프리고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절망의 탄식소리를 내질러댔다.

미국방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만에 미7함대사령관의 목을 베는한편 모든 함대들에 해상작전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성부터 확인할것 등 긴급명령을 하달하느라 복닥소동을 피워댔다.

미국방성이 전세계에 널려져 작전임무수행중에 있는 해군함대들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제는 정화시기의 《격돌》과정에 미제침략군 전투함선이 이러한 패배를 당한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이다.

지난 6월 17일 일본 시즈오까현앞바다에서도 류사한 일이 벌어졌다.

경계근무중에 있던 미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피츠제랄드》호가 나고야항을 떠나 이즈반도를 지나가던 2만 9 060t급 필리핀선박과 충돌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필리핀선박의 운명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미국의 《최첨단전투함선》과 부딪쳤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이였다.

《피츠제랄드》호는 이지스체계의 핵심인 레이다무분을 비롯하여 우측선체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우측으로 기울어졌으며 7명이 죽사하고 함장을 포함한 3명은 종신불구가 될 정도로 육체가 찢기여졌다.

반면에 필리핀선박은 멀쩡하였다.

지난 1월에도 미7함대소속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호가 일본의 도꾜만에서 좌초되여 추진기가 부서져나가고 연유가 대량류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5월에는 이지스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호가 남조선해역에서 어선과 충돌하는 등 올해에 들어와 미해군 이지스함선들의 각종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지스함선들의 충돌사고는 경기용승용차가 쓰레기자동차와 부딪친것과 같다.》, 《최첨단함선이 해상에서 접근하는 민간선박도 포착하지 못하고 충돌사고로 종이장처럼 구겨진것은 충격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수 없는 믿을수 없는 일》, 《세계최강은 미국식허세》 등으로 심히 조롱하고있다.

미해군 이지스함선들의 충돌사고는 미국전체를 쇼크상태에 빠뜨렸고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해상무기체계를 가지고있는듯이 거들먹대던 미국의 체면을 검푸른 바다속에 통채로 구겨박았다.

미해군 이지스함들의 련이은 충돌사고가 시사하는바는 의미심장하다.

탄도 및 유도미싸일, 비행기를 포함한 여러개의 비행물체를 자동적으로 포착, 식별, 타격할수 있는 최첨단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이지스함으로 말하면 미국이 《불패의 함선》, 《바다의 왕자》,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수 없는 신의 방패》로 내세우는 해상작전장비이다.

이번에 충돌사고를 일으킨 《존 에스. 맥케인》호도 450~900㎞까지의 거리에 있는 200여개의 목표를 동시탐지할수 있는 고성능레이다를 장비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최첨단수단》이 대공을 날아가는 초음속미행물체도 아니고 통탕거리며 둔하게 움직이는 대형민간화물선을 발견조차 못한것도 희비극이고 충돌결과 숱한 사상자를 내고 갑판과 선체가 볼품없이 쭈그러든것은 미국이 자랑하는 《불패의 함선》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능히 짐작할수 있게 한다.

카관은 미국의 《불패의 위용》을 바다우의 이지스함들만 《과시》하는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얼마전에만도 침략적인 전쟁불장난에 동원되였던 미공군의 《UH-60 블랙호크》직승기가 하와이앞바다에 처박혀 5명의 승조원들이 수중고혼이 되였으며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소속 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가 오스트랄리아 동부앞바다에 3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을 실은채로 날아들었다.

미국이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호언장담하는 《F-35》스텔스전투기 역시 리륙하던중 프리남개부분에 불이 달려 부나비처럼 나떨어지는가 하면 비행도중 조종실에 연기가 차고 산소공급부족현상으로 조종사를 질식시키는 등 형형색색의 각종 사고들이 련발하여 운영중지상태에 있다.

미국의 신형해상배치형 요격미싸일 《SM-3 블로크 2A》시험발사도 발사대를 벗어난 즉시 미싸일통제의 공중폭발로 끝났다.

이때문에 지금 미제침략군내에서는 신형전투기, 함선들의 탑승을 전면거부하고 그 운용을 반대하는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것이 미국이 으시대며 광고하는 《최첨단군사기술》의 실상이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법이다.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수 없는 미국이 지스함을 비롯한 전쟁무기들의 잦은 사고에는 그 어떤 숙명적인 법칙이 작용하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지스구축함 《존 에스. 맥케인》호의 볼품없이 쭈그러든 선체, 뭉하니 뚫린 구멍을 보느라면 거대한 창에 찔리워 선지피를 흘리며 무섭게 울부짖는 괴물의 모습을 련상하지 않을수 없다.

침략과 전쟁의 길에 내몰렸다가 영문도 모르고 물고기밥이 된 미제침략군놈들의 비참한 운명은 그대로 심자가를 지고 력사의 무덤속으로 향하고있는 아메리카제국의 몰골이다.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겨끔내기로 벌어지는 온갖 사고들은 미제국주의의 종말을 예언하는 징후들이다.

지금 형성의 도처에서는 《신의 방패》를 뜻하는 이지스함이 험창하게 파손된 사실을 놓고 미국이 《신의 보호》에서 제명되였다는 풍문이 파다하게 떠돌고있다.

력사의 반동, 세계평화의 교란자, 침략과 략탈의 원흉, 인류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의 행태를 더는 참을수 없기에 마침내 《신의 저주》가 내렸다는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지어 미국의 추종국들과 미국내부에서도 《수습할수 없는 미국의 붕괴》, 《죽어가는 미국》, 《모래우의 제국》, 《아메리카제국은 현대판 로마인가?》라는 목소리들이 불소나기처럼 쏟아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아메리카제국이 이지스함과 더불어 검푸른 바다속으로 수장되고있을 때 동방에서는 거대한 뇌성으로 천지를 뒤흔들고 적황색불줄기를 내뿜으며 전략로케트들이 우주만리에로 치솟아오르고있다. 이것은 급상승하는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보여주는것이다.

정의와 불의, 진리와 허위, 승리와 패배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극적인 두 현상이다.

황혼이 비낀 아메리카제국에 조종이 울리는 속에 정의의 절대적힘을 틀어쥐고 해돋이마냥 솟아오르는 백두산대국의 광휘로운 모습은 그야말로 세기적전환의 대전경화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여 꺼져가고있는 제 치지도 모르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불태우는 미국은 이제 더는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조소의 대상으로 되였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세인들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쩔쩔매는 미국의 몰골이 호랑이앞에 선 이발빠진 늙은 승냥이꼴이라고 야유하고있다.

《너자신을 알라.》

력사의 이 경고를 새기지 못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며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오늘은 이지스구축함에 파렬구가 났다면 래일은 난파선 미국이 통채로 침몰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아메리카제국의 운명에 드리운 피빛석양이 어둠으로 화하는것은 시간의 법칙이다.

안 대 일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지지하고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규탄하여 에질트, 파키스탄정당, 단체가 17일과 1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에질트아랍사회주의당은 련대성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자위를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독단과 횡포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알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독단과 횡포를 저지시키는것은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임무이기도 하다.

조선을 건드리는 경우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게 된다는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먼저 대량살륙무기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조선은 자위권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파키스탄전국로조련맹은 성명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에 의해 극도로 긴장된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다.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으면서도 조선의 핵보유를 구실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은 미국의 뻔뻔스러운 처사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조선인민의 생존권을 노린 《제재결의》의 철회를 요구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남조선단체 일본과의 군사협정폐기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4일 남조선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일본과의 불평등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괴뢰당국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해 11월 23일 국민들의 초불투쟁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규탄하고 이 협정은 검토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협정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은 협정체결로 일본이 남조선에서 《집단적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지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것도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하고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하여 단 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협정을 당장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들을 애족애국운동에로 총궐기시키기 위한
간또지방 총련일군들의 긴급모임 진행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과 북침핵전쟁소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재일동포들을 애족애국운동에로 총궐기시키기 위한 간또지방 총련일군들의 긴급모임이 23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총련중앙단체, 간또지방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허종만의장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는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사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간또지방 총련일군들의 긴급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련속적인 성공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한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발동하여 반공화국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압박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제재결의》의 부당성을 폭로단죄하였으며 군대와 인민은 미국에 대한 단호한 보복의지를 안고 전인민적인 반미항쟁에 총궐기하였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올해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과 군사적도발망동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해지고있으며 세계는 일찌기 체험한적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라며 숨을 죽이고 주시하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이 오늘의 사태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이 조국보위, 총련사수의 각오로 조직건설과 동포들을 묶어세워 애족애국운동에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를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전환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족애국의 성새, 민족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지는 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첫째도 둘째도 동포들부터 찾아가는것은 총련의 전통적인 활동방식이며 특히 오늘 총련일군들앞에 나선 가장 긴요한 임무라고 하면서 그는 동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백두산대국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고 총련조직을 사수하며 동포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일연 총련도꾜도본부 위원장, 위경호 총련가나가와현 요꼬하마지부 위원장, 강명호 총련사이다마현 중부지부 위원장,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 량옥슬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긴급모임후 진행된 총련중앙단체 책임일군들과 간또지방본부위원장들의 협의회에서는 당면한 투쟁과 행동지침이 토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제넘은 《대화조건》타령을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과 야합하여 또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이 그로 인한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를 마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대화조건》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최근 남조선집권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이 추가적인 핵, 미싸일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추어질수 있다는 주제넘은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러한 조건하에서 《대북특사를 보내는것도 고려》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고있다. 그야말로 누구의 《도발중단》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느니, 《대화재개여부는 북의 태도변화》에 달려있다느니 하고 말같지 않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남조선집권세력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대화》타령이 얼마나 허황하고 엉터리없는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오는 《대화조건》이라는것은 북남관계에서 도저히 성립될수 없는것으로서 대화그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그에 대해 《북과 대화할 리유를 없애버린것》, 《먹지 못할 음식을 차려고 잔치에 초대한 격》 등으로 조소를 보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대화조건》에 대해 운운하기 전에 상대가 누구이고 저들의 처지가 어떤가 하는것부터 살펴보고 말과 행동을 분수에 맞게 해야 한다. 친미굴종과 예속의 수치스러운 굴레를 벗지 못하고있는자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대해 겁고들며 《대화조건》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가당치 않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로부터 산생된것으로서 그것이 종식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이다.

남강도 미제에 의하여 이 땅에서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다져나가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락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 불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지금 비참한 운명의 분분초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있는 트럼프패거리들은 이제 더이상 우리의 핵무력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백마진 비명을 지르고있다. 이런 속에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저저마다 나서서 트럼프의 대조선정책을 비난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허세를 버리라.》, 《완전히 다른 새 판을 짜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하고있다.

로악한 핵전쟁미치광이는 정의의 핵보검으로 다스리는것이 상책이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서의 우리의 실체와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자체력을 함부로 떠보려는 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군사적실권마저 미국에 통채로 내맡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누구의 《추가적인 핵, 미싸일도발중단》을 《대화조건》으로 내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추태인가.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도 모르는 무식한자들,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압살책동에 광분하며 민족의 운명을 외면하는자들이 떠들어대는 《북핵문제해결판련대화》라는것은 영원히 있을수도 실현될수도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압박공조에 매달리는자들은 북남대화에 대해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극악한 친미역적이며 동족대결광신자인 박근혜를 파멸시킨 초불투쟁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지향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한때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에 할 말을 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선임자와 다른 정책을 실시할듯이 냄새를 피웠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놓고보면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고 지지표를 걷어모으기 위한 오그랑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대통령》빙거지를 쓰기 바쁘게 미국을 찾아가 굽신거리면서 상전의 강도적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을뿐아니라 저들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앞장설것을 맹약하였다. 선임자와 다름바 없는 현 남조선집권자의 대미추종정책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파국상태에서 헤여나기는 고사하고 날로 더욱 악화되였다.

이렇게 초보적인 정치적주견이나 신의도 없이 미국에 적극 추종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악의 지경에 빠뜨린 자들이 뻔뻔스럽게 《대화조건》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리익으로부터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미제의 전쟁피수가 지껄인 폭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가 도처에서 치솟고있는 때에 남조선집권자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제재와 북침불장난소동에 매달리면서도 렴치없이 그 무슨 《대화조건》따위를 들고나오고있으니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합리화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대화조건》이니 뭐니 하고 너덜대도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기운을 몰아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북남관계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근본립장이 바로서지 않는 한 북남대화는 하나마나한 걸치레에 불과할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앞잡이가 되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일체 도발적망동부터 당장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집권 전기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의 변화유도》를 떠들어대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공조에 집요하게 매달리다가 종당에는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였다. 남조선의 현 당국도 친미사대, 동족대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처럼 얼빠진 《대화조건》타령이나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한다면 북남대화의 길이 영영 가로막히고 저들의 파멸의 시각만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 철 준

월간국제정세개관
국방력강화에 공고한 평화가 있다

정화의 천쑤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발악을 한다. 총대가 약하면 노예가 되고 총대가 강하면 승자가 된다. 이달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흐름이 그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하였다.

온 세계의 초점은 이달에도 조선반도에 집중되였다.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이곳 정세가 이 행성을 새로운 세계대전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기때문이다. 그 근원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자위적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고나가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의 정계와 군부의 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슨 군사적선택을 고려하고있다는 주제넘은 망언을 내뱉으며 분주탕을 피웠다. 군통수권자라고 하는 트럼프까지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커키에서 죽음이 나는것이지 미본토에서 나지는 않을것이다.》라는 미친 폭언들을 줴쳐댔다.

거의 때를 같이하여 조선전선투입을 예견하여 미82항공륙전사단이 대규모적인 실전공중강습 및 기동전개훈련에 진입하였으며 25경보병사단과 10산악사단은 조선반도지형에 익숙하기 위한 산지훈련에 열을 올리였다. 《네이비 씰》등 특료전담특수부대들이 남조선에 긴급투입되고 미제침략군의 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들이밀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그런가 하면 곳도에 전개되여있는 핵전략폭격기들이 빈번히 날아들어와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타격하는 실전연습과 위력시위놀음을 벌렸다.

미국의 핵전쟁광증은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행동단계에 들어섰다.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이 현상황에서 충돌을 불러올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행동도 특별히 삼가해야 하며 만일 계속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그를 제압견제하기 위한 실제적행동을 취할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미국은 중대한 의미와 무게가 담긴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 도전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이 련이어 남조선에 기어들어와 괴뢰들과 쑥덕공론을 하고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우리 최고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과 《비밀작전》훈련, 우리 혁명무력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이 벌어지는 전쟁연습마당을 들아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타고앉으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미제야말로 평화파괴의 장본인이라는것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편승하여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긴장해지자 일본반동들도 덩달아 날뛰며 조선이 미일의 공동의 《위협》으로 되고있다느니,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부산스레 놀아댔다. 일본도처에서는 대피훈련이 진행되고 《자위대》는 그 무슨 미싸일공격을 가상한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새로 방위상자리를 타고앉은 오노데라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방위성이 조선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싸일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를 검토하고있다는 립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우리 국가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해외팽창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였다.

실지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우리 공화국을 턱대고 미국의 지상배비형미싸일종합체 《이지스 어서》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다음회계년도 군사비를 사상 최대규모로 늘이기로 하였다. 이지스함을 늘이고 새로운 페이다의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9일에는 우리 나라를 적으로 정해놓고 주일미군기지에서 《PAC-3》미싸일전개훈련을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를 더욱 격화시켰다.

이달에 미국과 뒤골방쑥덕공론을 벌려놓고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동조한 주변나라들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 저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자 미국에 추종하여 대조선《제재결의》에 손을 들어주어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았다.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미국의 책동에 동조한 그들의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큰일이나 친것처럼 놀아대며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이달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인류의 평화념원에 배치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수리아에서는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으로 내란이 지속되였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로 정세가 복잡해졌다. 미국은 이 나라가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적선택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

이달에 미국과 뒤골방쑥덕공론을 벌려놓고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동조한 주변나라들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 저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자 미국에 추종하여 대조선《제재결의》에 손을 들어주어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았다.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미국의 책동에 동조한 그들의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큰일이나 친것처럼 놀아대며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본사기자 권 학 남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트럼프를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7일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불사》망언을 늘어놓으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 트럼프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기자회견의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트럼프의 끔찍한 폭언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쟁벌거숭이 트럼프는 무기장사군》이라고 태매하면서 트럼프는 동아시아지역을 불안한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저들의 무기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북미사이에 긴장과 대결이 어제오늘에 있은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려는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감히 트럼프가 조선반도를 화염으로 만들겠다고 꿰친것은 사람들만 죽이자는게 아니라 인류문화와 문명까지 박살내려는 범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중의 힘을 합쳐 새 사회, 새세상을 만들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주권방송을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련대를 결성하였다.

26일에 진행된 결성모임에서는 선언문이 광독되였다.

선언문은 민중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중의 힘이 적폐《정권》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민중이 힘을 합쳐 새 사회, 새세상을 만들기 위해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선언문은 국민주권련대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면서 단체가 민중의 뜨거운 의사를 받아들여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137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